정부의 체육시설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이름	박서희	**글쓰기 수업 분반**	03
학번	20230287	**글쓰기 담당 교수님**	박상경

정부의 체육시설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20230287 박서희

<목차>

1. 서론
2.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도입 배경과 현황
   2.1 도입 배경
   2.2 규제 대상 및 범위
3. 체육시설 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현황 및 한계
   3.1 현황
   3.2 한계점
4. 개선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장과 3장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체육시설업으로 나뉜다. 공공체육시설에는 국내 및 국제대회가 개최되는 운동장이나 체육관과 같은 전문체육시설, 개방형 족구장과 같은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직장 내 체육시설이 포함된다. 체육시설업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수영장업, 야구장업 등이 포함되며 시설 규모와 운영 행태에 따라 세부 종류가 나뉜다. 체육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스포츠 활동을 즐기기 위한 중요한 장소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체육시설 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는 중요한 정책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있다.

체육시설은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자 일회용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소들 중 한 곳이다. 그러나 체육시설 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이는 현대 사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련 정책들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는 '보여주기식', '그린워싱' 형태에 그친다는 비판과 체육시설이 일회용품 규제의 사각지대에 속한다는 지적을 현재 계속해서 받고 있다.

체육시설에서는 많은 일회용품이 소비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 오염과 자원 소모를 계속해서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닐 응원봉 사용 금지, 플라스틱 봉투 사용 금지 등과 같은 정부의 체육시설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한계점을 도출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일회용품 증가로 인한 환경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므로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본 연구는 환경 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 도입 배경과 규제 범위

2.1 도입배경

국내 일회용품 관련 규제는 1992 년 12 월, 정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시작되었다.[1] 약 30 년 전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함을 깨닫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을 실시한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의 도입 배경은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로부터 기인되었다.

일회용품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플라스틱은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서 탄소 배출 문제가 심각하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며 매립지의 용량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또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려워 폐기물 처리가 매우 어렵다. 해양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 생태계와 어촌 생활 인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크기가 5mm 미만인 플라스틱 입자인 미세 플라스틱은 생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데, 동물은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될 시 산화 스트레스 유발, 장 손상 및 섭식 장애와 행동 패턴의 변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한다.[2] 정부는 이런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비닐과 플라스틱 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도입하였다.

---

[1] 김정수, (2023.11.24) "최저임금 9배 뛰었지만 일회용품 과태료 30년째 제자리", 「한계레」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17690.html (2023.12.16)

[2] 김보경, 김남연, 이은희(2023) "수 환경 속 미세플라스틱의 다양한 오염물질 흡착 거동 및 생태독성" 「대한환경공학회지」45-11, 대한환경공학회, 529

<그림 1>: 일회용품 규제 관련 주요 일지[3]

2.2 규제 범위

2017 년 3 월 16 일부터 시행된 환경부예규 제 601 호에 제 4 조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업종별로 일회용품 사용이 억제되거나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가. 1 회용 컵(합성수지 컵·금속박 컵 등), 1 회용접시(종이접시, 스티로폴 접시, 금속박 접시 등), 1 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 용기 등), 1 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1 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 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품은 제외한다)를 식탁 등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행위.
   나. 1 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2. 목욕장업 : 1 회용 면도기, 1 회용 칫솔·치약, 1 회용 샴푸·린스를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3. 대규모점포 : 1 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1 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다만, 순수종이 재질로 제작된 봉투·쇼핑백(손잡이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4. 도·소매업 : 1 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1 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

[3] 김기범(2023.11.7) "일회용품 줄이려던 사회적 노력 물거품…'일회용품 안 쓰려던 아이들에겐 뭐라 설명할까요?'", 「경향신문」
https://m.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311071536001#c2 (2023.12.16)

5.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 1 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 회용광고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 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위 행정규칙에 따르면 현재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은 금지된다.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배달 및 고객 방문 포장 경우를 제외하고 업종별 일회용품 규제 적용대상 품목이 확대됐지만, 현장의 부담과 안정적인 제도정책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적용됐었다.[4] 하지만 정부는 2023년 11월 7일, 계도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일회용품 규제 조치를 사실상 폐기하였다.[5] 현재는 식당과 카페 매장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편의점의 비닐봉지 사용이나 체육시설 내 비닐 응원용품 사용 등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3. 체육시설 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현황 및 한계

3.1 현황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실시에 따라 체육시설 내에서의 일회용품 무상제공이 금지되었으며, 현재 국내의 체육시설들은 일회용품을 대신하는 다회용기 사용을 소비자들에게 권고 및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공공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로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관의 비전을 두고 지속적인 환경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폐기물 감량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본 기관은 2021 년 1 월 21 일, ISO-14001(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6]) 사후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 외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다양한 업적을 이루었고 2022 년 제 17 회 대한민국 환경대상의 ESG 경영 부분에서 본상을 받으며 그 공헌을 인정받았다.

K 리그는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 한국의 스포츠 단체 중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리그 비전을 선포하였으며 친환경 응원 도구와 유니폼 제작, 기부 행사 등

---

[4] 경주포커스(2023.11.7)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전면시행", ,「경주포커스」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85 (2023.12.16)

[5] 김기범(2023.11.7) "일회용품 줄이려던 사회적 노력 물거품…'일회용품 안 쓰려던 아이들에겐 뭐라 설명할까요?'",「경향신문」 https://m.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311071536001#c2 (2023.12.16)

[6] "ISO 14001", KSA 한국표준협회 https://ksa.or.kr/ksa_kr/978/subview.do (2023.12.16)

다양한 방면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KLEAGUE, 2021;정지은,2023) 또한 K 리그는 "K 리그 그린킥오프" 캠페인을 규정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K 리그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줄여갈 것을 선언하였다.

아구장은 전국 스포츠시설 폐기물 양(6176 톤)의 35.7%(2203 톤)를 차지할 정도로 쓰레기 발생량이 매우 높으며 소비자들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회용품 폐기 문제 또한 심각하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와 프로야구 열개 구단들은 현상황을 인지하고 일회용품 규제 정책에 따라 다회용 응원용품 사용, 다회용기 사용 인증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여러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구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다. 또한 KBO 는 분리배출 문제 개선에 대해서도 여러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서울시는 프로야구팀 LG 트윈스, 두산베어스와 '제로웨이스트 서울 조성을 위한 잠실야구장 다회용기 사용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2022 년 8 월 16 일부터 10 월 25 일까지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7].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11 만명의 야구팬이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에 참가하였으며, 두 달간 약 5.5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림 2>: 야구장 다회용기 사용[8]

3.2 한계점

체육시설 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은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체육시설의 식음료 매장은 현재 식품접객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반 카페와 달리 헬스장 내 설치된 카페에서는 내부에서 취식할 시에도 플라스틱 용기에 음료가 제공되는 모습, 축구경기장과 야구경기장과 같은 대규모의 체육 경기장 내에

---

[7] 진재성(2022.11.17) "'일회용보다 깨끗하고 편하네요!'...잠실 야구장에서 다회용기 체험하기" 「이로운넷」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0192 (2023.12.16)

[8] 위의 자료

서 캔음료를 구매하면 무상으로 플라스틱 컵을 함께 제공하는 모습 등 일회용품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여러 체육시설 내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종합체육시설,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 내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규제되지 않고있다. 일회용 종이컵은 주로 정수기 옆에 구비되며, 체육시설 이용자들은 물을 마실 때 이를 많이 사용하고는 한다. 체육시설 특성상 물을 많이 마시는 이용자들이 많아, 일회용 종이컵 사용자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 많다. 일회용 종이컵은은 안쪽에 코팅되어 있는 폴리에틸렌으로 인해 재활용되기 어렵다. 많은 소비자들이 종이로 재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회용 종이컵의 안쪽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게하는 폴레에틸렌(PE)이라는 물질이 코팅되어 있다.[9] 폴리에틸렌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성분이며 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셋째, KBO는 야구장 내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녹색연합의 간담회 요청에도 무응답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있다.[10] 또한 막대풍선과 같은 합성수지 재질의 비닐류 응원용품 외의 다른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존재하지 않고 정부는 소비자들이 외부 노점에서 일회용품을 구매해 체육시설 내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많은 대중들은 체육시설이 일회용품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으며[11] 현정부의 친환경정책이 '보여주기식'에 불가하다며 일회용품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표현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가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갑자기 철회한 이유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2024 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겨냥하여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었다.[12]

4. 개선 방안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일회용품 폐기물을 남반구 국가들로 무책임하게 떠넘기고 있으나 이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는 것에

---

[9] 크리베이트(2020.5.9) "종이컵은 사실 폴리에틸렌이 발린 플라스틱 컵이다" 「크리베이트」 https://crevate.com/yc/종이컵은-사실-폴리에틸렌이-발린-플라스틱-컵이다-2/(2023.12.16)

[10] 녹색연합(2023.11.16) "[성명] 기쁨과 축제의 야구장, 쓰레기 배출량 1위 스포츠 시설이라는 오명 벗어야" 「녹색연합」 https://www.greenkorea.org/activity/living-environment/zerowaste/104039/ (2023.12.16)

[11] 정성민(2023.6.13) "체육시설 1회용품 규제 사각지대…1회용품 사용 저감 대책 시급", 「한국NGO신문」 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92 (2023.12.16)

[12] 김기범(2023.11.7) "일회용품 줄이려던 사회적 노력 물거품…'일회용품 안 쓰려던 아이들에겐 뭐라 설명할까요?'", 「경향신문」 https://m.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311071536001#c2b (2023.12.16)

중점을 두어야 하며 적합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13] 체육시설 내의 식음료 매장도 환경부예규 제 601 호에 제 4 조 1 항에 저촉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을 명확히 해야 목적에 맞는 올바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체육시설 내 식음료 매장이 일회용품 규제의 사각지대에 포함되는 장소로 비춰질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들을 구축해야 한다. 영국에 있는 한 체인 매장은 일회용 봉투를 전면 금지한 뒤, 소비자들이 빈 용기를 가져와 무게를 재면 그 무게에 따라 가격을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매장의 새로운 포장 시스템은 소비자 만족도에 크게 기여하며 점차 체인점 수도 증가하게 되었다고 한다.[14] 이처럼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소비자들의 기업을 평가하고 제품을 구매할 때 기업이 환경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체육시설들에게 환경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력히 심어주어야 하며, 관련 기업들의 환경활동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체육시설 폐기물 양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야구장 내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KBO 는 현재 응원용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2023 년 한국시리즈 기간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함을 설치하는 등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노력을 보였다. 2024 년 시즌부터는 전구장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배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제를 가하는 규제를 도입하여 제도실행을 확실시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배출함 설치비와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을 지원하여 KBO 와 많은 야구팬들의 친환경적인 움직임이 앞으로의 시즌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체육시설이 일회용품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계도활동을 기획하고 정책 홍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현재 많이 실행되고 있는 SNS 를 통한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은 젊은 세대를 겨냥한 홍보활동에 불과하다. 체육시설은 전세대가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모두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 할 수 있는 새롭고 참신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기업, 지역사회에게 강연 혹은 워크샵, 세미나를 통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의무교육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유명인사나 대중적인 캠페인 등을 활용하면 소비자들이 환경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이때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텀블러, 에코백, 개인용 수저 활용 등을 함께 안내하여 일회용품의 사용 없이도 체육시설을 편히 사용할 수 있음을 공지한다면 소비자들 스스로가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13] 김나라(2023.3.22) "플라스틱 늪에 빠지고 있는 대한민국", 「그린피스」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25806/report-disposable-korea-ver2-results/ (2023.12.30)

[14] 권영후(2022) "일회용품 규제와 플라스틱 규제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4

5.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체육시설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 모호하고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정책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업과 같은 몇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 정책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이를 강화해야 하고, 적합한 홍보활동을 세워야 한다. 또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재사용 가능한 제품들의 도입을 촉진해야 한다.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면 여러 집단에서의 사회적 저항이 예상되며, 일부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체육시설의 규모가 매우 클 경우 페트병 사용과 외부음식 포장 및 배달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일회용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규제가 닿지 않거나 통제가 어려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소비자들이 환경을 위해 작은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한다면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실효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참고문헌

경주포커스(2023.11.7)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전면시행", ,「경주포커스」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85 (2023.12.16)

김기범(2023.11.7) "일회용품 줄이려던 사회적 노력 물거품…'일회용품 안 쓰려던 아이들에겐 뭐라 설명할까요?'",「경향신문」https://m.khan.co.kr/environment/climate/article/202311071536001#c2 (2023.12.16)

김나라(2023.3.22) "플라스틱 늪에 빠지고 있는 대한민국",「그린피스」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25806/report-disposable-korea-ver2-results/ (2023.12.30)

김보경, 김남연, 이은희(2023) "수 환경 속 미세플라스틱의 다양한 오염물질 흡착 거동 및 생태독성"「대한환경공학회지」45-11, 대한환경공학회, 529

김정수, (2023.11.24) "최저임금 9배 뛰었지만 일회용품 과태료 30년째 제자리",「한계레」 https://m.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17690.html (2023.12.16)

권영후(2022) "일회용품 규제와 플라스틱 규제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녹색연합(2023.11.16) "[성명] 기쁨과 축제의 야구장, 쓰레기 배출량 1위 스포츠 시설이라는 오명 벗어야"「녹색연합」https://www.greenkorea.org/activity/living-environment/zerowaste/104039/ (2023.12.16)

양연호, (2021.11.28) "종이컵 이젠 100% 재활용 가능해진다"「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10116522 (2023.12.16)

진재성(2022.11.17) "'일회용보다 깨끗하고 편하네요!'…잠실 야구장에서 다회용기 체험하기"「이로운넷」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0192 (2023.12.16)

정성민(2023.6.13) "체육시설 1회용품 규제 사각지대…1회용품 사용 저감 대책 시급",「한국NGO신문」https://www.ngo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1792 (2023.12.16)

정지은(2023),「MZ세대의 사회적 가치관에 따른 스포츠조직 ESG경영 인식이 소비자감정 및 조직평판에 미치는 영향」한양대학교 박사논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 장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장

크리베이트(2020.5.9) "종이컵은 사실 폴리에틸렌이 발린 플라스틱 컵이다"「크리베이트」 https://crevate.com/yc/종이컵은-사실-폴리에틸렌이-발린-플라스틱-컵이다-2/(2023.12.16)

환경부예규 제 601 호에 제 4 조

"ISO 14001", KSA 한국표준협회 https://ksa.or.kr/ksa_kr/978/subview.do (2023.12.16)